



# 권력에 눈먼자들의 독선은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 독선과 아집의 역사

비바라 터크먼 지음, 조민·조석현 옮김

조지프캠벨 '신의 가면-원시신화학' 서문에는 이런 글이 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반복되는 현상에 대한 경구다.

"미래에도 이미 내가 들은 것과 똑같은 주제가 다시 울려 퍼지리라. 이성적인 사람이 이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미치광이가 어이없는 일과 대참사를 위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말란 법은 없다."

"독선"과 "아집"은 권력과 관계가 있다. 비단 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모든 조직, 단체에 이르기까지 권력이 작동하는 곳에는 독선과 아집이 자리한다. 미국의 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다른 모든 과학은 진보하고 있는데도 정치만은 옛날 그대로이다. 지금도 3, 4천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작금의 우리 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검찰개혁'이다.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위로 끝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만큼 폐쇄적인 조직 논리가 '권력'과 결부돼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을 토대로 권력에 눈먼 통치자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보여주는 책이 발견됐다. 두 차례에 걸친 플라치상 수상자이며 20세기 최고의 역사가인 비바라 터크먼이 펴낸 '독선과 아집의 역사'가 바로 그것. 책은 실정(失政)의 분석과 해명을 통해 독단과 편협의 정치를 바로잡는 성찰의 계기를 준다.

책을 번역한 이들은 '옮긴이의 말'에서 스스로 자멸을 초래한 어리석은 통치자들을 몇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 사례로 트로이 목마를 든다. '아둔함의 원형이자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다. 신과 인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트로이전쟁은 목마를 성안으로 끌어들이으로써 파멸을 자초했다. 저자는 "목마이야기는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경고와 실행 가능한 대안을 무시하고 국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사례는 르네상스시대 교황들의 독선과 아집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했던 이들의 퇴행이 결국 자멸의 길로 빠져들게 했다는 분석이다. 밝아오는 근대 여명 앞에서 개혁을 거부하

고 "폐락과 타락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 몰락의 주요인이다.

역사를 보건대,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과 이권을 추구했던 세력은 결국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 통치자들, 조직이든, 특정 단체든 본질을 왜곡한 채 권력을 휘둘렀던 이들의 말로는 불을 보듯 뻔했다.

"르네상스시대의 교황들은 조국인 이탈리아를 전쟁과 외국의 압력의 희생물로 전락시키고 독립까지 없게 한 주역이었다. 또한 신의 대리인으로서 교황직을 만민의 비웃음을 사는 자리로 만들어, 루터가 자랄 수 있는 요람을 제공했다."

세 번째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베트남전쟁에 관한 부분이다. 베트남전쟁은 시작부터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본다.

"전쟁은 케네디의 판단 착오에서 싹트고, 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존슨, 여기에다 닉슨과 그의 참모들은 아집과 독선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베트남 전쟁이야말로 미국 대통령과 정책 결정자들 그룹의 독선과 아집의 결정판인 셈이다."

위의 사례들은 역사는 배움의 장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혜를 얻는 최고의 방법은 과거의 실패사리를 통째로 통째로.

오늘의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의미 또한 각별하다. 어떠한 통치자나 세력, 조직도 독선과 아집에 사로



1965년 6월, 베트남전쟁을 피해 피난가는 민간인들 뒤로 미군 탱크가 베트남 거점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자작나무 제공)

잡혀 미래를 읽지 못한다면 파멸을 피할 수 없다. 당장의 눈속임은 가능하겠지만 도도한 민의와 역사의 파고 앞에 휩쓸리기 마련이다.

"아집과 독선은 개인의 타고난 성격이기 때문에 통치에 대해서도 그 이상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

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통치상의 독선은 개인의 독선보다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이성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

(자작나무·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넘다, 여성 시인 백년 100인보 한경용 지음

우리 민족 최초의 서정시인은 고대국가의 '공무도하가'를 부른 여성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성 시인'은 한류문화의 원천으로 볼 수 있다.

시집 '빈센트를 위한 만찬'의 시인 한경용이 '넘다, 여성 시인 백년 100인보'를 펴냈다. 100명의 인물을 소재로 출간한 시집은 1910년대부터 2000년대 시인까지 아우른다. 시집 제목 속의 '넘다'라는 말은 '필자 자신의 근경을 넘다, 여성 시인들의 역경을 넘다, 독자와 사회 모두가 처한 언덕을 넘다'를 뜻한다.

한경용 시인은 여성 시인 100명에서 "남녀가 아니라 을의 입장, 소수자, 약자에 대한 인간애를 노래했다"며 "현대가 잃어버린 감성을 찾아서 100년을 뒤돌아보는 것이다. 100년 시인 모두가 꼭지처럼 함께 울어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작품집에는 신여성 시인들과 홍윤숙, 김남조, 문정희, 고정희, 김승희, 황인숙, 정갈별, 나희덕, 이정림, 박정미, 강영은 시인 등을 모티브로 한 시가 수록돼 있다. 특히 남도 출신의 고정희, 문정희, 김승희 시인에 대한 시들도 눈에 띈다. 시대를 아파하고 예술을 노래했던 시인들을 통해 문학사적 위치뿐 아니라 예향의 가락 속에 울땀 뚫어낸 생명과 감성을 주목한다.

정과리 연세대 국문과 교수는 "한국의 여성 시인 100인의 생애를 전달하고 있으며 자주적 삶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온 한국 여성의 고난과 투쟁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라가는 형상으로 그리고 있다"며 "백 사람은 모두를 압시하고 시인은 삶을 상징한다, 한국의 여성사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고 평한다.

(시담포엠·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국밥 한국음식문화포럼 지음

서민의 대표 음식, 국밥은 국에 밥을 마는 것일까? 아니면 밥에 국을 마는 것일까? 어떤 것은 국이라 불리고 어떤 것은 탕이라 불린다. 어떤 것은 생선으로 끓이고 어떤 것은 고기로 끓인다.

한 그릇의 국밥에는 음식의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지역의 자연, 지역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식가적 안목을 지닌 전국의 식문화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음식문화포럼이 '국밥'을 펴냈다. 한, 중, 일 음식의 기원은 물론 전국 원조식당의 실제와 팔도 제철 식재료,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음식문화 콘텐츠뱅크'와 같은 모임이다.

책에는 김준, 박정배, 양용진, 이춘호, 최원준의 글이 수록돼 있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식은 시대를 담은 그릇이다. 그만큼 음식을 통한 시대적 통찰은 지대하다. 그 시대의 음식과 음식재료, 음식문화로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고 '섭생의 사회학'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책에는 제주의 몸국, 서해안의 간국, 부산의 돼지국밥, 대구의 파로국밥, 서울의 설렁탕 등이 나온다. 한마디로 '제주에서 서울까지, 삶을 말아낸 국 그릇'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밥은 다양한 재료, 다양한 조리법으로 요리되기에 삶과 문화의 결정판인 셈이다.

저자들은 "한식에 대한 정보의 확대와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지역음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음식의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 한식 내연이 깊어지고 외연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비·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명왕성 연대기 닐 디그레스 지음·김유제 옮김

지난 2006년, 국제천문연맹(IAU)은 명왕성의 행성 자격을 박탈하고 '왜소 행성'으로 전락시켰다. 이 사건은 이라크 전쟁, 다르푸르 대량 학살 등 급박한 뉴스를 덮어버릴 만큼 논쟁이 과열됐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세계 언론과 학계,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을까.

미국 자연사박물관 부설 헤이든 천문관 관장이자 천문학자인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명왕성 행성 자격 논쟁의 전개 과정을 한 데 모은 책 '명왕성 연대기'를 펴냈다.

당시 논쟁은 국제 천문학계에서 행성의 정의를 정식화하고 '왜소 행성', '태양계 소천체' 등 개념을 재정립하는 등 천문학적으로 큰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저자는 그 논쟁이 비단 과학계의 문제만이 아닌 정당 정치, 경제 불평등, 사회 문제, 교육 정책, 맹목적 애국주의 등이 뒤얽힌 문화사적 사건이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

2000년 헤이든 천문관에서 태양계 전시 모형이 설치된 '로스 센터'를 개장할 당시 명왕성을 제외한 나머지 행성들만을 전시해 '뉴욕 타임스' 1면에 소개되며 '명왕성 마니아'들에게 맹비난을 받아왔던 것이다.

책은 명왕성에 대한 문화, 역사, 과학적 설명에서 시작해 행성 자격 논쟁 당시 논쟁의 큰 축이었던 저자가 지켜본 학계의 논쟁, 신문 기사와 만평, 노래 가사 등 정치·문화·사회적 반응들을 총체적으로 실었다. 또 해양성 궤도 너머의 천체인 카이퍼대 천체, 오르트 구름의 형성과 얼음 천체, 목성과 화성 사이 소행성대 등 태양계 전반에 관한 천문학자들의 탐사의 역사와 고민이 담겨 있다.

(사이언스북스·1만65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슈베르트 세 개의 연가곡 나성인 지음

모차르트, 베토벤을 잇는 천재 음악가로 불리며 '가곡의 왕'으로도 잘 알려진 프란츠 슈베르트는 3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기 전까지 1000여개의 작품을 쏟아냈으며, 그 중 3분의 2가 가곡이었다고 전해진다. 슈만, 브람스, 슈트라우스 등 수많은 작곡가에게 영감을 준 그의 가곡을 분석하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공연기획자이자 해설가로 '베토벤 아홉 개의 교향곡', '하이네. 슈만. 시인의 사랑'을 펴낸 나성인 작가가 슈베르트의 삶과 음악과 함께 3개의 연가곡에 대해 분석한 책 '슈베르트 세 개의 연가곡'을 출간했다.

책은 7개 장에 걸쳐 진행된다. 1-4장에서는 어린 슈베르트가 본격적으로 음악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방황하는 과정을 다룬다. 몰도넬이었던 베토벤의 장례식에 참가한 슈베르트의 모습으로 시작해 어머니의 죽음, 첫사랑 테레제와의 실연, 친구들과의 모임 '슈베르티아데'에서의 교제 등 마이스터가 되기 전의 삶이 담겼다. 5-7장은 슈베르트의 3개 연가곡인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겨울 나그네', '백조의 노래'를 각각 분석하고 배경 이야기를 엮는 장이다. 각각의 연가곡 하나 하나를 독일어 원문과 함께 놓고 가사에 담긴 시적 함의, 악상에서 드러나는 작곡가의 의도, 가사에 담긴 이야기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관습에 대한 서술, 음악과 관련된 명화, 상황과 어울리는 시 등을 함께 신는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곡을 해석한 점이 특징이다. 책의 말미에는 슈베르트 연가곡을 들을 수 있는 음반 추천, 슈베르트의 삶을 요약해 볼 수 있는 연보도 함께 실었다.

(한길사·1만65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문의처: 266-4150 (문흥지점), 573-4150 (양산지점), 528-4150 (운암지점), 513-4150 (운암산지점), 572-4150 (매곡지점), 576-4150 (첨단지점)